

지역 매아리

부안군, 국비 14억원 투입

상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부안군은 내년부터 국비 14억원을 들여 국가시범사업인 상수도 자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 범위 내에서 노후 수도시설의 장애 개량 수요에 대응해 최적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년간 컨설팅과 자산관리 데이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수도물 공급과정의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망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스마트 관망관리란 올해 인건 적수사태와 같은 수질사고 발생 시 실시간 수질, 수량 데이터를 확보해 사전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탁수를 자동배출하게 하는 등 부안군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최선의 선진 자동화 시스템이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노후관이 해마다 늘면서 적수나 탁수발생 우려가 높아져 급수관로 점검과 이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과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최적화된 표준모델과 관리데이터를 가진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

유소년축구페스티벌' 협약식 개최

정읍시가 지난 31일 사단법인 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과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 유소년축구 페스티벌'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 김용철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대회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으로 서로 협력해 이번 대회를 원만히 개최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축구 페스티벌 1차는 오는 22일부터 4일간 개최된다.

29일부터는 48개 유소년 축구팀이 2차로 참여해 풀디그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차례에 걸쳐 총 96개 팀 800여 명의 선수·임원·학부모 500여 명 등이 정읍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도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스포츠 메카 정읍'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포츠종합타운 조성으로 국제대회가 가능한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시 홍보와 지역발전에 노력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만전'

이재욱 농림부 차관, 권익현 부안군수와 세계잼버리 부지·배추 포전 방문 점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30일 부안군을 방문해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지와 배추 포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 군수와 농업경제지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 차관과 함께 세계잼버리 부지 매립과 배추 영농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세계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새만금사업단장으로부터 잼버리 부지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았으며 권 군수로부터 부안군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권 군수는 해양석산지구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개발을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의 기초가 된 해양석산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우수한 경관과 접근성 좋은 해양석산에 로컬푸드 미병(未病) 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해양석산은 부안군 하서면의 새만금지구 전면에 위치한 산지로 지난 1981년 새만금 개발 시작과 함께 400만㎡ 이상의 토석이 채취돼 바다 속으로 사라진 아픔을 지닌 곳이다.

이후 잔여지에 지난 2012년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사업으로 관광단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30일 부안군을 방문해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지와 배추 포전 현장을 점검했다.

계획했으나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부안군이 구상 중인 로컬푸드 미병 센터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질병 전 예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안군 친환경 유기농 농업 집단화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해 미병 치료의 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병은 질병은 아니지만 신체·육체·사회적으로 건강상 기능, 기질적 이상을 보이는 상태로 질병과 건강의 중간 영역을 말한다.

이 차관은 권 군수의 건의를 경청하며 "새만금과 해양석산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차관과 권 군수는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소재 배추 포전을 방문해 배추 작황상태를 직접 둘러보고 태풍 피해 및 병충해 발생 여부, 건의사항 등 영농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 군수는 "현장 애로사항 및 농민의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점 협약식 가져

정읍시는 지난 31일 지역 내 금융기관과 정읍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유진섭 시장과 19개 판매·환전 대행점을 대표한 조현형 시장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 시장과 조 시장장은 상품권 판매와 환전업무에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정읍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순정축협 정읍지점, 전북은행 정읍지점, 정읍은행 정읍시점지점, 정읍새마을금고, 정읍산림조합, 정읍애신협 등 총 19개 금융기관 46개 지점이다. 상품권은 11월 중에 발행해 지역

농·축협에서 12월 1일부터 유통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협 등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유통할 계획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 3종으로 총 50억 규모로 발행된다.

개인별 월 70만 원까지 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도에는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구절초 꽃축제' 성황리 마무리

'제14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최근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정읍시와 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가 함께한 이번 축제는 '술금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를 주제로 16일 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시에 따르면 축제 기간 방문객은 30만여 명에 이른다. 전년보다 길어진 축제 기간으로 매입장객 기준

전년 대비 6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아스타와 바늘꽃 등 새로운 꽃들도 함께 식재되어 구절초 개화 시기와 맞물려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구절초 숲 꽃집'과 '구절초 꽃길 트레킹', '구절초 사진 공모전' 등의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행사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 문성정시를 이뤘다.

또, 꽃길 언덕에 설치된 대형 '꽃 드레스 포토존'에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등 행사장을 찾은 가족과 연인들이 추억의 사진을 찍기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저마다 찍은 인생 사진을 무료로 인쇄해 제공함으로써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청춘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촬영도 축제 기간에 이루어져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일 내장산 단풍과 함께하는 '정읍쌍화차거리 축제' 열려

내장산 단풍과 함께하는 '제2회 정읍쌍화차거리 축제'가 오는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정읍경찰서 민원주차장에서 열린다.

'2019~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쌍화차거리협의회(회장 이관용)가 주관한다.

축제는 정읍쌍화차거리를 홍보하고 쌍화차거리 내 상점주와 건물주, 지역주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읍쌍화차거리는 8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정읍세무서에서 정읍경찰서까지 이어지는 약350m의 찻길 골목이다. 시는 이 거리의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골목으로 발전시켜 전국 최초 쌍화차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쌍화차 시음과 프

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솜사탕 매직쇼와 어린이 쌍화차 모델 선발대회, 쌍화차 건강 꿀든벨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된다.

기암석은 2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오후 4시부터는 JTVM '정혜라의 행복발전소' 특집공개방송으로 가수 박상민과 진주, 임수정, 한여름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3일에는 인기가수 변진섭과 박강성, 자전거탄풍경, 채수연 등이 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오셔서 다 같이 따뜻한 쌍화차로 마음을 녹이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축제를 통해 맛과 전통이 살아있는 정읍쌍화차거리를 외부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경제가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AHYC Gochang'
(Asia-Pacific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Youth Conference in Gochang)

2019. 11. 01 (금) ~ 11. 02 (토)
고창 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
6개국 7개 도시의 청년들이 고창에 모여 역사문화도시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 합니다.

고창군이 석정웰파크시티에서 '아태 역사문화도시 청년컨퍼런스'를 연다.

세계 역사문화도시 청년들, 고창에 모인다

오늘 석정웰파크시 아태역사문화도시 청년컨퍼런스 열려

고창군이 11월 1~2일에 석정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2019 아태 역사문화도시 청년컨퍼런스'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내 거주하는 6개국 7개 역사문화도시(한국 고창, 중국 시안·우한, 베트남 호치민, 캄보디아 시엠렘, 키르기스스탄 오쉬, 몽골 울란바토르) 청년 40여명이 참여해 각 도시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표하고 서로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창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동시에 역사문화도시 고창의 면모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창군 관광진흥팀 김동원 팀장은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 모여 서로의 문화다양성을 배우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고창의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 인프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빛내어 부르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1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TEL : 063-584-9960 | www.gangsanwine.com